

언어변화와 영어모음변이

(Linguistic Change and the English Great Vowel Shift)

金 寅 淑

1. 영어의 모음변이에 관하여 흔히 시도되어온 접근법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영어의 모음변이에서 처럼 음변화가 음성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일종의 연쇄작용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어느 음(what/which)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는가를 규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즉 음변화가 전면적으로 일어나도록 충당한 initiator가 어느것인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Luick(1914~1940)는 ME 중설모음(mid vowels)이 제1차적충동(primary impulse)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바 있다.

(2) 어떤 특징음의 변화가 언제(when) 일어났는가를 규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영어모음변이의 chronology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Zachrisson(1913, 1927)과 Wyld(1927, 1936)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증거를 occasional spelling이나 rhyme에서 찾았다.

(3) 이 변화가 어느 지역(where) 또는 어느 방언(dialect)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4) 음변화의 추이가 어떻게(how)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접근이다. 예를들면 ME/i/>Mod E/ar/의 중간경로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Ellis(1867~1889)에서 비롯되며, 그뒤 이 방면의 업적은 Zachrisson(1913), Dobson(1957), Wyld(1923, 1936) 등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Stockwell(1970), Wolfe(1972)에 이른다.¹⁾

(5) 이같은 음변화는 왜(why) 일어나는가에 대한 접근이다. Ellis(1867~1889), Luick(1900, 1914~1940), Martinet(1955, 1960), Weinreich/Labov/Herzog(1968)등으로 이어지는 이 방면의 연구는 언어변화

1) cf. 김인숙(1976).

의 근본문제는 바로 그 원인(causes)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것없이 언어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6) 음변화에는 어떤 제약(constraints)이 있는것은 아닐까?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이 방면의 연구로는 Stockwell(1952)을 들 수있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범위는 위의 (5)에 한정될 것이며, 기타문제들은 필요한 한도내에서 언급하는 것에 그치겠다.

2. 언어변화의 원인규명은 지금까지 많은 저항에 부딪쳐 오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언어의 자취를 더듬어가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그 복잡 미묘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힌 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언어학자는 모름지기 'why'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how'란 의문을 던지고 변화의 과정이나 경로를 형식화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how'에서 보다는 오히려 'why'를 추구하고는데서 흔히 충족되기 때문에 얼핏 난제로 보이는 복잡한 문제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된다.

3. 먼저 음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앞서 빈번히 빌려쓰게될 몇가지의 술어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언어변화의 자취를 더듬어가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대략 두갈래의 학파에서 나온 이론들이 원인규명의 framework의 기본이 되어오고 있다. 그 하나는 'mechanists'(또는 traditionalists)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functionalists'(또는 structuralists)의 입장이다. neo-grammarians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자의 견해는 sound change(또는 sound laws)와 analogy라는 한쌍의 mechanism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Sturvant (1947:109)의 다음과 같은 간결한 표현이 이들의 입장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Phonetic laws are regular but produce irregularities. Analogic creation is irregular but produces regularity.

이말의 claim은 phonetic laws와 analogy의 양자때문에 system의 균형이 유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simplify된 표현인것같다. 그것은 analogy를 systemic regulation과 동일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systemic regulation의 과정에서 analogical form이 흔히 쓰이기는 하지만

regulating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leveling'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음변화의 발달에서부터 system에의 수용(受容)에 이르는 process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기때문에 sound change나 analogy의 mechanism 만으로는 언어변화의 원인 혹은 idiolect와 system과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것이 과거에 비판을 받아온 traditional view의 약점이었다. 어쨌던 이같은 이유로 sound change와 analogy를 system 자체내의 유일한 변화요인으로 계속 간주해오고 있는 학파의 사람들을 'mechanists'라고 부르는것은 당연하며, 또한 'mechanical' change 운운할때의 그슬어는 바로 이같은 이론적 배경위에서 고찰할 때에 비로소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²⁾

Functionalists의 입장은 system 안에서의 asymmetry나 imbalance를 바로잡는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언어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functional view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들고나온 언어변화의 요인에 대한 이론은 처음보기엔 매우 유망해 보였다. Horn/ Lehnert(1954)가 언어변화의 요인을 Zwecktätigkeit(expediency, economy)와 Ausdruckstätigkeit(expressiveness)로 간주하였고, 그뒤 이 이론은 Martinet(1962:139)에 의해서 더 부연되었다.

...the structure of language is nothing but the unstable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communication, which requires more numerous and more specific units, and man's inertia, which favors less numerous, less specific, and more frequently occurring units.

그러나 이 견해가 언어변화의 역사적연구에 확고한 토대가 될수있을런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Bloomfield(1935)는 언어형태의 생성과 소멸의 기복을 논하는 가운데 그 형태의 유효성(effectiveness)여부는 불행하게도 언어학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소관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³⁾ 이것은 언어변화의 요인이 mechanical한 것과 functional한 것을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분히 사회언어학적인 면을 갖고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Labov(1966)도 그의 통제자료에서 informants의 speech를 careful한 것과 casual한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런 선택(그것이 발음이건 어휘이건 또는 문법이건간에)의 유효성을 사정할 수

2) sound change 및 analogic change에 관해서는 Bloomfield(1935), Ch 22, 23 참조.

3) ibid. p.402.

있는 완전한 통제실험을 해 낸다는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또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 form이 어떤 speaker에게 있어서는 기능적이거나 표현적인데 반하여 다른 speaker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동기지워진 것인가하면 또 다른 speaker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모방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난점에 부딪치게 된다. 이같은 난점은 통시적인 차원에서 볼때에 더 두드러진다. 그것은 표현의 필요(expressive needs)에 의해서 선택된 form에는 forceful variants뿐만 아니라 economy의 결과로서 본시 나타났다가 다시 forceful form으로 바뀌는 변이형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逆)의 경우도 생긴다.

어원학 분야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OE *ic*의 ME 반사형은 *ich*(강세가 있는)와 *y*, *i*(강세 없는)였다. 그러던것이 전자는 점차 후자에 의해 대체되었고 다음에 이것들이 (*y*, *i*)/*i*/라는 강세를 띤 새 형태로 등장했다. 여기서 다시 Mod E /a:/로 변화했다. 만약 다른 아닌 relaxed variants가 GVS의 일부분으로 선택되어 다시 stressed form으로 새 기능을 띄고 sonority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이라면 이같은 음변화 과정에 대한 해석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방대한 규모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mechanical view이든 functional view이든 어느 한쪽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어모음체계의 문제점들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1) idiolect(parole-based) origin에서 비롯된 변화가 system(langue-based)으로 수용되는 과정

(2) 초기의 system에서 후기의 system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function의 전환(switching)

(3) mechanical factor와 systemic factor의 평가사정문제

다음으로 명백히 해 두어야 할 것을 선택절차(process of selection)라는 술어이다. 이것은 모든 언어변화에 공통되는 특성이다. 이것은 언어변화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 내지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모든 변화는 적어도 그 초기에 이미 spoken chain⁴⁾의 변이형들속에 그 씨가 배태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어떤 언어형태의 모방, 전파, 그리고 system에의 궁극적인 수용등을 보장해 주는것은 바로 이 선

4) spoken chain과 system은 Saussure의 *parole*과 *langue*와 대응관계에 있으나 diachronic implications은 더 복잡한것같다. 이에 관해서는 Samuels (1972) p.139 참조.

택절차의 계속적인 작용때문이다. 이 선택작용은 spoken chain의 level에서도 진행되며 system자체내에서도 진행된다. 또한 이 작용은 드문 변이형보다 흔히 쓰이는 변이형을 택하기도 하고 그 역순일수도 있다.

‘mechanical’이란 말에는 spoken chain에서 쓰이는 변이형의 모든 source가 포함되며 다른 방언이나 다른 언어에서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변이형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들의 기원이 생리적(physiological)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간에.

4. 언어변화의 요인을 다루게 될 frame work를 설정하는데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변화는 mechanical한 요인과 functional한 요인의 결합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자가 극단적으로 우세한 경우도 있고 후자가 우세한 경우도 있다. 이들변화는 spoken chain과 system의 양쪽 level에서 다 일어난다.

이 framework는 두개의 level(spoken chain과 system)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절차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가지의 요인들(mechanical, functional, extralinguistic)의 상대적인 효력은 각 level에 미치는 압력(pressure)에 따라서 판단된다. push-chain으로 알려지는 압력은 먼저 spoken chain의 level에서 일어나며 다수의 변이형에 가하여지면서 선택의 절차를 받게 된다. 한편 drag-chain으로 알려지는 압력은 system의 level에서 작용하며 spoken chain에 존재하는 소수의 변이형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적 차원에서 볼때 이 두가지의 level은 Saussure의 *parole* 과 *langue*의 level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공시적으로 볼때 이 두가지의 구별은 최소한도 다음과 같다. 전자(spoken chain)는 ‘일정기간에 걸친 일정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말(utterances)의 총체’이며 후자(system)는 ‘같은 집단 및 같은 시기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기준의 총체’. 그러나 통시적으로 볼때에 그 두가지의 level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즉, 통시적 차원에서 볼때 이 spoken chain에는 모든 가능한 잠재적인 변이형이나 새형태까지 들어 있다. 온갖 유형의 음성적(phonetic) 변이형은 물론, 문법이나 어휘형식의 확충, 新語, 속어 등등도 포함된다.

Spoken chain에서 생겨나는 변이형들은 이같은 mechanism에 의해서 다음의 세가지 코스층의 어느하나를 밟게 된다.

(1) 이들 변이형들이 system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system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변이형들은 착오에서 빚어졌거나 두사람의 대화자간에서 우연히 발하여졌거나 만들어졌더라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집단속에서 일시적으로 쓰이다가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이들 변이형들은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 system이 당장 필요로 하는 요건에 따라서 선택되고 oppositions의 집단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3) 변이형들이 다량으로 생기면서 이것들이 system에 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system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요인들은 대개는 extralinguistic이거나 혹은 extrasystemic한 것들이다.

모든 변화가 spoken chain과 system의 양쪽 level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것을 위에서 알았다. 이 가정은 mechanical factor와 functional factor 중의 어느 하나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할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특히 위의 (2)와 (3)의 가능성 사이에는 두 level(spoken chain과 system)이 일치할 수도 대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두 level간에 거의 일치된 현상을 보여주는 예로 /ū/변이형의 선택절차가 있다. *floor, door*에서는 /ɔ/였는데 *poor, boor, moor*에서는 /ū/를 spoken chain에서 선택한것은 순음(labial)뒤에서는 /ū/가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system의 level에서도 /ū/를 택한것은 *pour, pore, bore, more*등과 동음충돌(homonymic clash)을 피하기 위해서 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5. 울림(sonority)은 음변화와 관련성이 별로 없는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와는 반대로 영어모음변이와 같은 circular shift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울림을 더 많이 지니고있는 open vowel(/ε/나 /a/)이 high, closed vowel(/i/나 /u/)에 비해서 음변화의 과정에서 덜 애용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울림이 음변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들을 해 오고 있다. 이같은 가정은 모음 생성에 있어서 보여지는 역설, 즉 강세가 있거나 근육의 긴장이나 힘을 요하는 모음은 일반적으로 전설(fronting), 상승(raising), 경음(tenseness)등과 밀접한 관갯가 있다는 역설을 간과하고 있는것 같다. 음향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울림자체가 강세에 기여

하는 하나의 요인이므로 강세를 요하는 context에서 상승된 모음의 울림이 상승되기전의 모음의 울림보다 약한 결과를 가져올때 이것을 보완 교정하는 길은 새로히 상승된 모음을 더 힘주어 발음해야된다. 이같은 과정이 종국적으로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유합(merger)이 일어남은 물론 모음들을 모두 전설·고모음대(high-front area)로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길을 막고있는 것은 functional한 이유때문이며, 이미 고모음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모음들은 push-chain mechanism에 의해서 보다 더 낮고 보다 중설에 가까운 자리로 내려오게된다는 것이 종래의 가정이었다.⁵⁾ 그런데 여기서 관과하고있는 점은 첫째 下降·中舌化된 변이형들은 relaxed style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둘째, 이 relaxed style 또는 unstressed form으로 생성되어 쓰였던 변이형이 보다 효율적인 forceful style/stressed form으로 select되었을 가능성이 짙은 점이다. selection이 바뀌는(switch) 기능적인 이유는 새 모음들의 구별(differentness)때문만이 아니라, 상승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울림의 감소를 보상하려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영어의 모음변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非高母音의 자리에 있던 모음들은 forceful style의 변이형들을 선택하므로써 상승 및 전설모음화되었고,

(2) 고모음의 자리에 있던 모음들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relaxed style의 변이형들을 새로운 강세형태로 선택하므로써 하강 및 중설음화되었다.

따라서 영어모음변이의 circular shift는 homeostatic regulation의 구체적인 예라고할 수 있다. circular shift의 초기변이는 mechanical한 것이었고 후기의 것은 functional한것이며 이는 mechanical change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균형을 바로잡게될 변이형들을 선택하므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circular shift는 단순한 merger와 split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6. 언어변화의 원인규명은 종래 많은 저항에 직면해왔고 매우 discouraged되어온것이 사실이다. 언어변화란 불가피하며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자는 모름지기 'why'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how'에 관심을 갖고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고 일부학자들은 생

5) cf. R. D. King(1969) pp.3-21.

각해왔다. 언어는 계속 변천하는 사회가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화의 방향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어떤 조건하에서 그 기대되는 변화가 일어나며, 둘째로 어떤 요인들이 예측할수없는 변화를 조건 지워주는가? 라는 두가지 문제가 추구의 대상이 됨을 알게된다.

아직도 우리에게 언어변화의 원인이라든가 요인이라는 말이 어떤 단일한 한 가지의 것으로만 들리는 타성같은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cause'라는 술어는 단일요인(單一要因)만을 함축하는 듯한 매우 불리한 약점을 안고있는데, 이는 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어떤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우세하게 돋보여질 때도 있으나, 단 한가지의 요인만을 고집하는 'all-or-nothing fallacy'⁶⁾란 관념 내지 연구태도는 특히 통시언어학에 있어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자칫 간과하게 된다. 오늘날 pure science나 applied science에 있어서 복합적조건외의 원리(the principle of multiple conditioning)는 상식화되어 있다. 그런데 언어변화의 통시적 연구에서는 이같은 접근법이 불신을 받아오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언어변화에 작용해 오고있는 여러원인들을 구명함에 있어서 기존언어이론들을 종합해야된다는 언어학자는 양면작전을 시도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극히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현대어법의 통제연구에서 여러요인을 종합해서 언어지는 설명이야말로 단일요인을 해석한 것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견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Quirk교수는(1968)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보다 더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을 주장한바 있다.

언어변화의 원인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해석은 그 변화의 복잡하고 방대한 요인들을 단일 이론으로 분석하고 설명해내려는 데서 온다. sound laws와 analogy를 내세우는 mechanists나 언어구조를 expressive needs와 economy의 불안정한 균형관계로 보는 functionalists나 extralinguistic factors의 교섭이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sociolinguists들이 제각기 자기 학파의 단일이론만을 밀고 나가려는데서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생긴다. 영어모음변이와 같은 방대한 문제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음변화의 주요인들을 한데 종합함이 마땅할 것이며,

6) Jespersen(1922) p. 262.

또한 실제로 (1) mechanical factors, (2) social factors, (3) functional factors에 의해서 언어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납득이 간다는 것을 다음에서 살펴계 될 것이다.

한동안 영어모음변이의 원인에 관한 functional aspects에서 본 설명들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다. Trnka나 Vachek에 의하면 /I/, /U/는 circular shift초기에 highvowel /i/, /u/보다는 오히려 /e/, /o/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i/, /u/가 고립되자 vowel system proper에서 밀려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Martinet는 quantitative distinction이 이미 후기 ME에서 neutralize 되었다는 그의 이론에 의해서 이 functionalists view를 한걸음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설사 circular shift의 원인이 high vowels의 유대의 단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순전히 기계적인 음성변화에 있으며, Martinet가 말하는 quantitative distinctions도 완전히 neutralize된 것이 아니라 closed monosyllable 속에 계속 남아있는 증거가 rhyming이나 정음학자들의 글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ME의 몇몇 vowel system에서도 이렇다할 asymmetry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영어모음변이 이전 보다 이후나 도중에 asymmetry는 심했다는 증거가 있다.

Spoken chain에서 고찰해 볼때에 첫째, 영어모음변이의 시발은 영어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인 prosodic change에 직결되어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영어는 final /ə/의 소멸로 인하여 서구의 어느나라 언어보다도 가장 단음절을 많이 가진 언어가 되었고 따라서 그 rhythm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time, ride와 같은 high vowel의 경우, final /ə/의 탈락으로 nuclear vowel 앞에 unstressed onglide가 오기 시작했으며, 강세가 핵모음에서 glide로 옮겨갔고 다시 glide가 핵모음으로 바뀌었음을 알수 있다.

둘째, 영어 high vowel에서 발단한 shift는 곧 이중모음화(diphthongization)현상을 가져왔는데, 유럽대륙에서도 이같은 변화의 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니 Dutch↔Frisian, High German↔Low German/Scandinavian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은 영어모음변이의 장본인(initiator)이 /ā/라는 functional view에 의심을 던지게 되는 한가닥 증거가 된다. 주목할것은 이 phoneme은 이미 유럽대륙에 있는 West Gmnc language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들 West Gmnc languages에서의 모음변이는 정상적인 mecha-

nical change에서 기대되어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변이 형이 북부방언이나 Scotland 방언에서 보다는 남부방언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대륙에서의 남북간의 차이와 일맥상통되는 바가 있으며, 더욱 이 사실은 남부영어, Dutch, High German 등 제지역에서 어떤 이어받은 Suprasegmental features(예를들면 stress)가 모음변이를 일으키는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거라는 확신을 더 굳혀주고 있다 (mechanical factor). 그러나 이들 변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은 아마도 사회적인 요인, 즉 이들 남부지방들이 보다 높은 민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non-Gmnc language를 사용하는 민족과의 접촉의 필요성이 이웃 변두리의 북부지역보다 더 강했다는 점일 것이다 (sociolinguistic factor).

더우기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lower classes와 'role-distancing'을 유지하던 것이 14세기 후반과 15세기부터 영어를 사용함에 따라 'role-distancing'의 방편으로 affected form of speech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변화의 초기단계에서 functional factor는 simple shift(즉 /ɔ/ > /ō/, /ō/ > /ū/ 등)의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모음과 단모음의 본래의 유대에 종지부를 찍는 정도였다. 후설모음의 경우 이 simple shift는 계속되어 이과정은 거의 완성되었다. 다시말해서 /ɔ/ > /ō/, /au/ > /ū/, /əu/ > /au/의 단계를 거쳤으며 systemic complication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전설모음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변이의 후기 단계에 가서는 systemic regulation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 기원은 ME/ā/음의 추가에 있다. 만약 이 음이 그대로 후설 /ā/나 중설 /ā/로 머물렀더라면 전설모음의 변이도 후설모음에서처럼 계속하여 완성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high vowel의 변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이유(mechanical/social)때문에 이 /ā/는 전설의 음역(area)으로 내밀리고 또한 상승되어 low-front vowel area를 침범하게 되었다. 16세기 후반 어느 정도의 유합(merger)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의 London지방에서 low-front vowel의 몇가지 다른 유합현상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made*, *maid*에 나타나는 유합현상이며, 어떤 system에서는 *mead*, *maid*에 나타나는 ME/Ē/, /ai/의 반사형들의 유합현상이고, 또 다른 system에서는 *mead*, *made*, *maid*에 나타나는 유합현

상이다. 그리하여 초기 현대영어(EModE)의 음운론에서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ME/Ē/의 반사형의 유합이 역전될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18세기에 *mead* <ME/Ē/는 *meed* <ME /ē/와 같은 rhyme을 지녔고 *made* <ME/ā/와의 rhyme은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ME/Ē/와 /ē/가 이미 /ē/로 유합된 다른 방언의 system이 London에 퍼졌고 따라서 shift의 초기단계에 /ī/로 상승되었다. 다른 system으로부터의 이같은 침범내지 간섭은 ME/Ē/의 반사형을 지닌 /ē/음소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London에서는 /ī/를 선택하게된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예는 Weinreich, Labov, and Herzog(1968)에 의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질적으로 공존하는 두개의 system을 통해서 생겨나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기에는 functional한 동기가 깔려있음을 알게 된다.

17세기 후반 London지방에는 재분배(redistribution)의 model을 제공하게될 제3의 System(Ⅲ)하고는 구별되는 두개의 System(I, II)이 있었다.

System I은 16세기 정음학자들과 17세기의 음성학자들이 인지(認知)하고 있는 system이고, System II는 주로 rhyme이나 pun에 근거를 두고 17세기 후반 정음학자들의 homophone lists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system이다.

	I	II	III
meed	ī	ī	ī
mead	ē	ē	
made maid	Ē		ē

I과 II는 16세기경 London지방에 공존했을 것이며 두 system의 차이는 아마도 social class의 차이에서 올것이다. 어쨌던 이 시기의 대표적인 system으로 정음학자나 음성학자들은 I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가장 널리 쓰였던 System I로부터 17세기말에 쓰였던 System II에로 계속적인 추이가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II만이 18세기까지 System III의 rival로 존속했다는 사실이 이런 추이과정을 설

명해 주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ystem III에의 재분배의 이유는 명백해 진다. 세계의 phoneme(*mead*<ME/Ē/, *made*<ME/ā/, *maid*<ME/aI/)이 유합된 System II는 소수의 London인들이 사용했을 동안만 생존가능했으나 곧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자 /ē/가 가지는 기능부하량(functional load)이 너무 커진관계로 그만 그 부하량의 일부를 System III의 /i/쪽으로 재분배해 주었을 것이다. System III에 속한 많은 homonym들을 보면 얼핏 이 변화가 일차적으로는 non-systemic한 성질을 띄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것으로 흔히 생각되기 쉬우나 그 밑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사실이 깔려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ē/가 들어있는 homonym의 수효는 생각보다는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i/	*	/ē/
been v.(p.p.)	bean n.	bane n.
beet n.	beat v.	{ bate v.,n. bait v.,n.
feet n. pl.	feat n.,a.	fate n.
Greece n.	grease n.,v.	grace n.,v.
grieve v.	greave n.	grave n.,a.
heal n.	heal v.	{ hale a. hail n.,v.
lee n.	lea n.	lay n., v., a.
leed n.	lead v.	{ lade v. laid v.(past)
meed n.	mead n.	{ maid n. made v.(past)
meet a.,v.	{ meat n. mete v. }	mate n.,v.
reeve n.	reave v.	rave v.
sheer a.	shear v.	share v.,n.
ween v.	wean v.,a.	{ wane v. wain n.

위의 list에서 한 가운데에 있는 column을 좌우의 column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 column의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변했다면 아마도 /i/나 /ē/의 어느 한쪽의 homonym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로 쓸린것은 그만큼 이유(functional)가 있기 때문이다.

*bean*이 *bane*과 /ē/에서 homonym으로 존속하지 못하고 /i/의 *been*과

homonym이 된것은 *bean*과 *bane*이 같은 form class이기 때문에 기능부하량이 증가되었고 게다가 homonymic clash가 일어났으므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i/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been*과 *bean*은 homonym이 되더라도 form class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beat*의 경우도 같은 설명을 할수있을 것이다. 만일 /ē/-phoneme쪽을 택하였다면 System III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ē/의 기능부하량은 너무 벅찼을 것이고 또한 셋이 모두 같은 form class이기 때문에 homonymic clash가 생겼을 것은 뻔하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form class가 다른 homonym이 있는 쪽을 택하였을 것이다. *meat*는 같은 form class인 *mate*와 /ē/에서 homonymic clash가 일어났을텐데 *meet*와는 form class가 다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mete*의 경우는 좌우 양쪽에서 모두 homonymic clash가 일어난다. 이경우엔 *meat*와 *mete*를 한데 묶어서 생각해 보면 된다. /i/에서 homonym이 되는 것이 /ē/에서 merge되는 것보다 기능부하량이 비교적 적기때문일 것이다. 중앙 column에 있는 data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설명이 된다.

아래의 두번째 list의 왼쪽 column에 있는 단어들은 본래부터 /i/음이 없었던 것들이다.

/i/	/ē/
beak n., v.	bake v.
deal n., v.	dale n.
ear n.	{ air n. heir n.
fear v., n.	{ fare v., n. fair a., n.
heat n., v.	hate n., v.
meal n.	{ male n. mail n.
mean v., a., n.	{ mane n. main n. a.
reap v.	rape v.
rear v., a.	rare a.
sneak n., v.	snake n.
treat n., v.	trait n.
veal n.	{ vale n. veil n.
weave v.	{ wave v., n. waive v.

그것은 오른쪽 /ē/ column의 단어들과 homonymic clash를 회피하기 위해서 /i/ phoneme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ear*가 /ē/에서 머물렀더라면 *air*와 *heir*와 함께 유합되어 기능부하량은 매우 커졌을 것이고 homonymic clash도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새 phoneme/i/를 선택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이표에서 특히 주목해야하는 것은 양쪽의 form class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homonymic clash를 회피하려는 추이가 있었음을 역역히 알수 있다. random sample로 *veal*을 택하여 보아도 금방 알수있듯이 *vale*과 *veil*과 함께 같은 form class에 속하므로 homonymic clash도 일어날뿐 아니라 /ē/ phoneme에서 유합되었을 경우 그 기능부하량도 벅찰 것은 뻔한 일이다.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i/ phoneme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ea* spelling을 가진 단어들중에서 예외가 되는 *great*, *break*, *steak*, *yea*에 대해서는 phonaesthetic factor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므로써 어느정도의 수궁이 간다고 본다.⁷⁾

7. 언어변화의 원인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해석은 그 변화의 복잡하고 방대한 요인들을 단일 이론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데서 온다. sound laws와 analogy의 mechanism에 의해서 모든 언어현상을 예의없이 분석하려는 neo-grammarians들의 태도다, 언어구조를 expressive needs와 economy/inertia의 불안정한 균형관계로 보려는 structuralists들의 태도나, extralinguistic factors의 교섭이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sociolinguists들의 태도는 제각기의 단일이론만으로는 언어현상을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영어모음변이와 같은 방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가지 이론에 치우침이 없이 음변이의 제요인들을 한데 묶어 종합해 봄이 바람직하며, 또 실제로 (1) mechanical factors, (2) social factors (3) functional factors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영어의 모음변이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납득이 간다는 것을 위에서 밝혔다.

Bibliography

Bailey, C.-J. N. (1970). "The English Great Vowel Shift: Past and Present," *Papers in Linguistics* 3:173-78.

7) Samuels, pp 150-153.

- Bloomfield, L.(1935). *Language*. London.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 Dobson, E. J.(1969). "Early Modern Standard English," Lass R. (ed.)
Approaches to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New: 419-39.
- Erdmann, P. H. (1972). "The English Great Vowel Shift and Generative Phonology," *Lingua* 29:243-73.
- Fishman, J. A. (ed.). (1968).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 Hockett, C. F. (1965). "Sound Change", *Language* 41:185-205.
- Horn, W. and M. Lehnert (1954). *Laut and Leben: Englische Lautgeschichte der neueren Zeit (1400-1950)*. Berlin.
- Jespersen, O. (1961).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 Sounds and Spellings*.
- Jespersen, 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 King, R.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ew Jersey.
- King, R. D. (1969). "Push Chains and Drag Chains," *GLOSSA* 3:1,
pp.3-21.
- Luick, K. (1914-40). *Historische Grammatik der Englischen Sprache*
Oxford.
- Luick, K. (1900). "Der Ursprung der neuenglischen ai-, au-Diphthonge," *Englische Studien* 27:89-100.
- Marik, J. (1913). "Über die neuenglische Vokalverschiebung,," *Englische Studien* 46:188-196.
- Martinet, A. (1962) *A. Functional View of Language*. Oxford.
- Martinet, A. (1964) *Elements of General Linguistics*(tr. by E. Palmer).
London.
- Quirk, R. (1968). *Essays on the English Language, Medieval and Modern*. London.
- Samuels, M. L. (1975) *Linguistic Evolu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Cambridge U. Press.

- Saussure, F. de. (1960)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r. by Wade Baskin). London.
- Stockwell, R. P. (1964). "On the Utility of an Overall Pattern in Historical English Phonology," Lass, P. (ed.), *Approaches to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N. Y.
- Stockwell, R. P. (1969)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reat English Vowel Shift," *The George L. Trager Festschrift*. Florida State Univ. pp. 344-62.
- Sturttvant, E. H. (1947)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Science* New Heaven.
- Sweet, H. (1891) *New English Grammar, Part I*. Oxford
- Vachek, J. (1964). "On Peripheral Phonemes of Modern English", *Brno Studies in English* 4:7-110.
- Wang, W. S-Y (1968) "Vowel Features, Paired Variables, and the English Vowel Shift," *Language* 44:695-708.
- Weinreich, U., Labov, W. and Herzog, M. I. (1968) "Empirical Foundations for a Theory of Language Change,"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95-195 (eds. W. P. Lehmann and Y. Malkiel). Austin.
- Wolfe, P. M. (1972) *Linguistic Change and the Great Vowel Shift in English*. Univ. of California Press.
- 출고(1976) "영어모음 변이", 영학논집 제1권 : 117-142.